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세계경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각계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분석을 수시로 제공하는『KIEP동향분석속보』를 발간합니다. [담당: 윤덕룡 연구위원 ☎ 3460-1068, dryoon@kiep.go.kr]

KIEP動向分析速報

제01-25호 / 2001년 7월 24일 발간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신정부의 출범과 정국 전망

작성자: 정인교 동서남아팀장
권 율 · 정재완 · 권경덕 전문연구원

主要內容

▣ 7월 23일 새벽 인도네시아 와히드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로 정국이 급박하게 진행되자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가 와히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 부통령인 메가와티가 대통령에 전격 취임하였음.

▣ 와히드측과 국민협의회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듯 하였으나, 최대 파워집단인 군부와 경찰이 중립 및 국민협의회 의사 존중을 천명함에 따라 와히드의 비상사태 선언은 무력화되었으며, 와히드 대통령은 사실상 실각함.

▣ 와히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메가와티의 대통령직 승계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국민협의회가 와히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 이후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환율은 오히려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 경제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메가와티 정권이 출범하면 IMF가 제시한 자금지원 조건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등 경제개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메가와티의 대통령 승계이후 금융위기 초기 및 1998년 수하르토 하야 때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정치 및 경제안정으로 대인도네시아 수출 및 투자활동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신정부의 출범과 정국 전망

□ 와히드 대통령과 국민협의회(MPR)[1]의 정치적 대결 및 와히드 대통령의 23일 새벽 전격적인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선포 등으로 혼란양상을 보이던 인도네시아는 7월 23일 오후 국민협의회 특별회기를 통해 압두라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 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함과 동시에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oekarnoputri) 부통령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함.

1. 인도네시아 탄핵정국과 그 배경

□ 1999년 10월 인도네시아 정치사상 최초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집권한 와히드는 개혁기조 유지, 부패 척결, 메가와티 부통령과의 정책 연합 등을 통해 집권 초기에는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조달청 공금 및 브루나이 국왕 기부금 횡령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탄핵의 길을 걷게 됨.

□ 와히드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된 보다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원내 제5당 인 국민각성당(PKB)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 집권당시의 권력분점 약속 위반, 거듭되는 실정과 국정운영능력 미숙, 경기불황의 지속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인도네시아는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 이후 정정불안과 구조조정의 미흡 등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으며, 루피아화 가치의 폭락과 인플레이션 지속, 외채 및 기업 부채 가중, 실업자 급증 등으로 여타 국가에 비해 경기회복이 제일 늦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와히드 대통령은 2000년 6월부터 의회(DPR) 차원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금년 1월에는 의회 특별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2건의 금융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탄핵절차가 시작됨.

- 의회의 1, 2차 해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와히드는 해명을 거부하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적극적인 타협안 제시보다는 권력 독점의욕 과시, 잦은 관료 교체, 반대 진영에 대한 탄압 가중 등으로 국민들과 의회의 지지, 특히 메

1) 과거 우리나라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사함. 국회의원 500명, 군 및 경찰대표 38명을 포함해 7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 선출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임.

가와티 부통령과 인도네시아내 최대 파워집단인 군·경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초래함.

□ 급기야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 5월 30일 재적의원 500명중 365명의 찬성으로 와히드에 대한 탄핵절차를 8월 1일 개최될 국민협의회를 통해 개시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와히드 측의 거듭되는 비협조 및 비상사태 선포설 제기 등은 국민협의회 개최를 다시 7월 21일로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 옴.

- 21일 긴급 소집된 국민협의회 특별회기는 와히드 대통령에게 국정실패와 부정의혹에 대한 해명연설을 위해 23일 오전 출두할 것을 결의한 바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즉각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한 바 있음.

□ 아민 라이스(Amien Rais) 의장 주도로 국민협의회 특별총회가 개최되고,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7월 23일 오전까지 해명연설을 위해 특별총회에 대통령이 출두할 것을 결의하자 와히드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임.

- 와히드 대통령과 국민협의회의 대결이 극한 상태로 치달으면서 극한적인 대립이 예견되기도 하였으나, 최대 파워집단인 군부와 경찰이 엄정 중립 및 국민협의회 의사 존중을 천명함에 따라 국민협의회와 의회의 해산 및 조기 총선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와히드의 비상사태 선언은 무력화 되었으며, 국민협의회 특별총회는 예정대로 와히드 현대통령의 탄핵을 가결시키고 메가와티 신임 대통령을 선출하기에 이름.

2. 신정부의 주요 과제와 전망

□ 국민협의회의 탄핵결정으로 2004년 10월까지의 대통령 잔여임기를 승계한 메가와티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회복 및 정치 안정에 둘 것으로 보임.

- 특히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메가와티 정부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함과 아울러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임.

- IMF가 제시한 자금지원 조건은 중앙은행법 개정, 재정분권화, 부실자산매각

및 민영화, 기업채무조정 등이었음.

□ 그리고 메가와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의회내 제2당인 골카르(Golkar)당을 비롯 주요 연립여당과의 권력 배분, 붕괴된 법과 질서 회복 등을 들 수 있음.

- 메가와티 신임 대통령은 공석이 된 부통령 등 25일로 예정된 내각구성에 있어 주요 정당 지도자들과의 협의 및 국민협의회의 계속적인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 유지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특히 대통령직 승계의 강력한 후원그룹인 군부와의 역할 정립 또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임.

- 반면, 국민협의회 또는 의회의 지지 획득 및 군부와의 역할 정립에 실패할 경우 메가와티는 와히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음.

- 이는 과거 집권당이었던 골카르당의 탄중 총재와 군소 야당들이 향후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여 와히드 대통령과 메가와티 부통령의 타협을 적극 모색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인도네시아 정국은 메가와티의 대통령직 승계 절차가 얼마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가도 큰 관건이 될 것임.

- 현재로선 와히드 대통령이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당분간 정정불안정은 지속될 전망이며, 국민협의회에 의한 탄핵에 따라 최대 종교세력이자 와히드 지지세력인 이슬람연합(NU)과 동부 자바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인도네시아는 다소의 소요 상황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현재 수도 자카르타에는 42,000여명의 군과 경찰이 정치적 소요와 테러에 대비하여 국회의사당 주변은 물론 주요 관공서 및 대사관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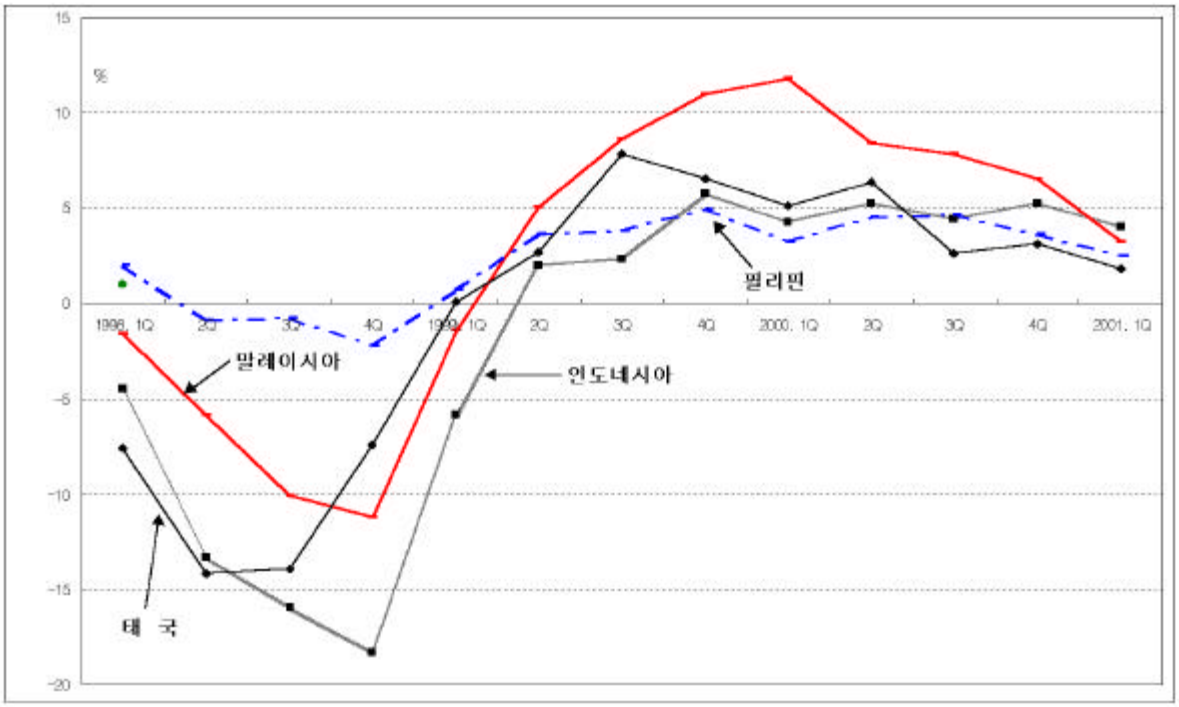
3. 인도네시아 및 역내 경제에 대한 영향

□ 인도네시아는 금융위기이후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본격적인 경제회복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동남아 국

가중에서 경제회복의 속도는 제일 늦은 실정임.

- 금융위기이후 지속되던 장기침체기에서 벗어나 2000년 4.5%로 플러스로 반전되기도 했으나,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정치적 불안정에 의해 시장불안요인이 증폭되어 왔음.

<그림 1> 동남아 주요국의 분기별 GDP증가율 추이(1998 2001. 1Q)



자료: ADB

□ 와히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메가와티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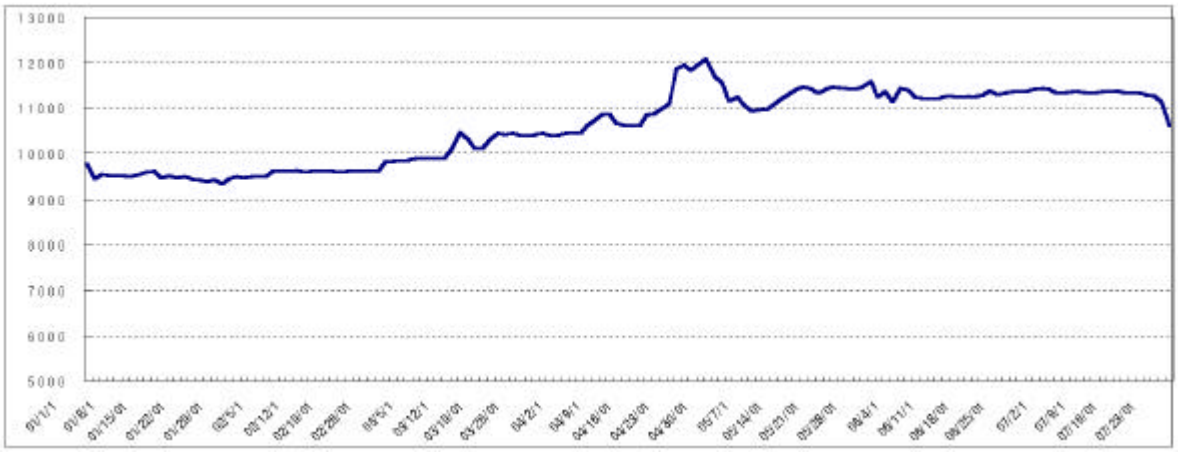
- 루피아 불안정의 최대요인은 와히드 대통령 탄핵문제로 인한 정국불안이라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은행부문의 구조개혁과 민간외채조정 지연으로 경제구조개혁이 늦어지면서 IMF의 지원자금 유입에도 난항을 겪어 왔기 때문임.

- 그러나 국민협의회가 와히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한 지난 20일 이후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은 오히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지난 5월을 정점으로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달러당 12,000 루피아까지 절하되었으나, 이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7월 23일 현재 10,000 루피아대에서

안정되고 있음.

<그림 2> 루피아 환율의 변화 추이(2001. 01. 01 07. 23)



□ 특히 IMF는 지난 연말 추가 지원키로 했던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현재까지 보류하여 왔으나, 경제개혁파인 메가와티측이 집권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경제안정을 위해 자금지원 재개를 위한 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인도네시아 경제침체 지속이 와히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정치불안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정치문제가 해결되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자연스럽게 회복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함.

- 다만, 메가와티의 정치 및 경제 운영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나, 현재로서는 메가와티가 정국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임.

□ 무엇보다도 부패혐의로 피소되었던 와히드 대통령보다는 메가와티 부통령이 개혁의지가 높고 정치적인 지지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신정부 등장은 동남아지역 정치안정 및 역내 경제안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 안정에 대한 관건은 얼마나 빠른 시일내 그리고 순조롭게 대통령직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느냐 하는 것임.

- 만약 현재의 대치정국이 장기화되고 최근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 및 대만 경제위기와 맞물려 태국, 필리핀 등 다른 인근 국가의 금융위기로 확산될 경우, 동남아 경제불안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메가와티 측의 대통령직 인수가 금융위기 초기 및 1998년 5월의 수하르토 하야 때와 같은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안정으로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및 투자활동이 과거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對미국 시장 의존비율과 IT분야의 비중이 낮고 고유가 추세의 유지로 收入原이 확보되어 있어,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안정이 달성될 경우 경제성장이 용이한 편임.

- 그리고 동남아 경제가 하강하기 시작한 2000년 말이후 한국의 對동남아 주요국 수출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에 비해 對인도네시아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인도네시아의 탄핵 정국이 한국의 수출 전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4위의 대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임을 감안, 인도네시아 정국의 향방을 예의 주시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교역 및 투자진출 전략 수립이 요구됨.

※ 내용문의: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정인교 팀장
【전화: (02) 3460-1208, ikcheong@kiep.go.kr】